전남도,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전국 1위'…3225대 늘어

전년보다 늘어난 3만1453대 가입…전국 대비 16% 차지 저소득층·경운기 농가 발굴·농협 협업 등 적극 행정 주효

전남도가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한 결과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실적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에선 지난 10일 현재 전국 가입 대수 19만5106대 대비 3만 1453대(16%)가 가입해 전국 최다 가입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만8228대보다 3225 대가 늘어난 수치다.

기종별로는 트랙터 1만3522대, 콤바인 2459

대, 이앙기 2437대, 농업용 동력운반차 2137 대, 경운기 1497대, SS분무기 1106대, 드론 617대 등이다

올해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비결은 전남도 가 보험 가입률 향상 대책을 세워 농협과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도와 농협은 공동으로 6~11월 중점 보험 가입 기간을 운영했다.

또 전남도는 보험료 100% 지원 대상인 저소

득층 농업인 458명을 발굴하고, 사고 빈도가 높은 경운기 보유 농가 등을 특정해 집중 홍보 를 추진했다.

농협은 일반 보험상품 판매 시 농기계종합 보험 판매를 병행하고 마을별 찾아가는 순회 상담회와 공동 홍보를 추진했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기계 사고 는 예방이 최우선인 만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경운기 등 도로 주행 농기계에 방향 지시등 부 착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저소득층은 100%, 일반농가는 80%를 지원하는 농기계종합보험에 꼭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전남도는 올해 농기계종합보험 사업비로 120억원을 농가에 지원했다.

변용일기자



전남도가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정보통신기반의 농기계 교통사고 감지 알림 시스템. (사진=전남도 제공)

'콕 잡는다 대포차'…전남도, 지방세 체납징수 기법 '대통령상'

여수시 발표 '전국 1위'…보통교부세 20억 확보



전남도는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발표대회에서 전남 대표 우수사례로 여수시가 발표한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 사례 를 발굴하고 성과 공유를 통해 지방 재정의 효 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부터 대회를 열고

전남도는 본선 최종 심사에서 지방세 체납 징수 분야에 출전해 올해 처음으로 전국 1위 를 차지했다.

총 182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된 가운데 전문

가 평가와 1.2차 심사를 거쳐 총 10건(예산절 감 4건·지방보조금 혁신운용 1건·지방세 2건· 세외수입 3건)이 본선에 진출했다.

국민평가단과 전문가 발표심사를 거쳐 10건 중 여수시 발표작이 전국 1위를 차지해 대통 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전남도와 여수시는 각각 10 억원씩 총 2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는 전국 최초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운행 정지 명령 차량(속칭 대포차) 정보 연계 시스 템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대포차를 적발해 체 납액을 징수하도록 고안한 기법이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지방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상 수상으로 보통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차량 정보 실시간 연계를 통해 대포차 체납액을 징수하는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확대되길 기대한다"고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정성 어린 '사랑의 좀 도리 쌀' 전달

동광주 새마을금고, 취약계층 이웃에 백미 520포 전달…올해 24년째

광주광역시 동광주 새마을금고(이사장 주길웅)는 22일 오전 무등로 425에 있는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회원과 임직원들이 일 년 동안 밥 지을 때마다 한 줌씩 모은 쌀(이하 좀 도리 쌀) 520포대(20kg)를 나 누어 주기 위해 관내 주민센터장, 금고 이 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쌀 전달식을 했다.

전달식에서 주길웅 이사장은 "올해로 24 년째를 맞고 있는 사랑의 좀 도리 쌀 전달 은 회원과 직원,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십시 일반 나눈 것으로, 올해는 역대 최고로 많 이 모았으며, 앞으로도 이웃 사랑의 옛 전 통을 이어 나가 지속적인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실공을 당고이 아겠다 다고 될었다. 사랑의 좀 도리 쌀은 차상위 계층, 우선 돌봄 대상자, 홀몸노인, 편부모 가정, 경로 당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 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동구청 관내 주민센 터에 기탁 전달했으며 쌀은 각 주민센터에서 온 화물차에 실어 운반해 갔다. 동광주 새마을금고의 좀 도리 쌀은 2001년 시작으로 지금까지 5,615포대를 전달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395포대인데, 올해가 520포대로 역대 최고다.

한편, 내년 1월에 개최하는 총회에서는 올해에 선발한 고등.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며, 자발적인 좀 도리 운동을 홍보한다고 했다.

동광주 새마을금고는 1976년 지역 서민 금융기관으로 출발하여, 1999년 12월 동광 주 새마을금고로 새로이 출발했다. 현재 회 원 수 5,383명, 총자산 2,546억 원, 공제 유 효계약액 1,357억 원의 대형 금고로 동구 산수동에 본점 및 지점 3개로 네 군데의 영 업점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평가 우수 및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서선옥기자

코레일 광주본부. 3년 만에 광주역으로 U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본부가 3년 만에 광주역으로 U턴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 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25일 "코레일 광주 본부가 26일부터 광주역에 돌아온다"고 밝혔 다

코레일은 지난 1월 발표된 정부의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순천에서 통합운영 중인 광주·전남본부를 광주본부와 전남본부 로 분리운영키로 했다.

광주본부는 광주와 전남서부 권역을, 전남 본부는 전남 동부권역을 각각 관할하게 된다.

기존 순천에서 운영됐던 광주전남본부 산하 광주지역관리단은 3처(안전보건처·시설처·전기처) 1부(운영지원부) 36명인데 비해 이번에 복원되는 광주본부는 6처(안전보건처·경영인 사처·영업처·차량처·시설처·전기처) 69명으로 확대 개편된다.

코레일은 지난 2020년 9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손실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광주와 전 남본부를 광주·전남본부로 통합해 순천에서 운영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후 비상 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출동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고 인근본부와 관리단 간 의 업무협조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인 조 의원은 현재 광주지역관리단을 광주본부로 변경해 안 전책임을 강화하고 사고복구 지휘체계를 단일 화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김수권기자







